

광주-화순 공동학군제 23년만에 부활되나

전남교육청·화순군 업무협약 내달 광주교육청과 협의기로 나주·담양·장성도 가세 전망 전교조 “성급한 추진 중단” 촉구

광주와 화순 간 고교 공동지원제(공동학군제)가 추진된다. 1993년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폐지된 이후 23년만에 부활할지 주목된다. 광주~화순 공동학군제가 성사되면 나주·담양·장성 등도 가세할 것으로 전망돼 광주·전남의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다음달부터 광주시교육청과 화순~광주 고교 공동학군제 시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공동학군제를 통해 고교 진학을 위해 광주로 다니는 인구 유출을 막고, 광주의 중산층을 화순으로 끌어들이 인구 10만명의 교육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내년부터 초·중·고 30곳에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전남도교육청은 기초 학력증진, 진로교육, 교원역량강화, 교육지원센터 구축 등 교육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두 기관은 고교 공동학군제 시행을 위해 명문학교 육성 등 공교육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공교육 협력학습 모델을 구축, 사교육비를 줄이고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은 “공교육의 경쟁

력을 확보하고 고교 공동학군제가 시행되면 전남교육 발전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이후 전남이 광주로 계속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전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공동학군제는 1986년 11월 광주가 광역시로 격상하면서 전남도와 분리되자 폐지됐다. 다만, 시·도 고교 신입생 정원과 중학교 졸업자가 균형을 이룰 때까지 전남지역 중학생들의 광주 진학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1992년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이농현상 등으로 전남지역 학생수와 인구가 감소되면서 시·군별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1993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해 전남지역 중학생들의 광주 진학을 차단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고교입

학 전형에 응시하려는 학생은 재학 중인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한개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도록 돼있다. 다만, 통학거리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교육청 간의 협의를 거쳐 인접 시군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고등학교 통학이 불편한 담양 고서중과 한재중, 장성 남중, 나주 남평중 등 4개 학교에 한해 광주시교육청과 협의해 광주지역 고교 진학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학군제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화순지회는 “우수인재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광주로 유학을 떠나도록 하는 때미는 정책”이라며 “성급한 고교 공동학군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선거법 위반’ 서삼석 전 후보 등 5명 영장

목포지청, 사전선거운동 혐의

무안군수를 지낸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8일 서 전 후보와 강모 전 부군수, 함모씨, 박모씨, 유모씨 등 총 5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13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서 전 후보의 당선을 위해 유사 선거조작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후보는 4·13 총선에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임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반대 보수단체 출범 걱정된다

5·18재단 “광주 고립 의도”

5·18을 상징하는 노래이자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국내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연합체 성격의 단체가 출범했다. 5·18기념재단은 이 단체 등장에 대해 “구성원 면면과 주장을 볼 때 논란의 중심에 선 박승춘 보존처장에 힘을 실어주고 광주와 5·18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대처를 준

비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보수성향 단체 50여 개로 구성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저지 범국민대책본부’는 28일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여야에 각종 주장을 쏟아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박승춘 보존처장 해임 반대 ▲임을 위한 행진곡 국가 지정 기념곡 지정 반대로 요약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광 153개 기관·사회단체 “해폐기물 저장시설 반대”

28일 영광지역 153개 기관·사회 단체로 구성된 ‘한빛원전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영광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동의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반대’를 결의하며 정부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성토했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한빛원전 물탱크 안에 36년째 방치되다시피 한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가 저장 공간 포화로 오는 2024년부터 발전소 가동 중단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자 기존에 없었던 신규 핵폐기물 처분장을 발전소 부지 안에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이 지역을 무시하고 무작정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

문화전당 옆 18층 호텔 건립 추진

“구도심 활성화 위해 필요” 동구청에 사업승인 신청서 교통난·조망권 침해 등 반발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옆에 18층 높이의 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자가 나타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자는 최근 동구청에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문화전당 개관 이후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확충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호텔 건립 문의가 잇따르기는 했지만 행정기관에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경우는 처음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화전당 주변 교통난과 고층 건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동구청에 따르면 A주식회사는 모두 180억원을 들여 동구 대의동 33번지 일원(1090㎡)에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연면적 1만982㎡)의 ‘아시아 아트 호텔’(가칭·Asisa Art Hotel)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호텔은 지상 76m 높이에 95개의 객실을 갖춘 3~4성급 비즈니스 호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A주식회사는 이달 중순 동구청 문화관광과에 ‘아시아 아트 호텔’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했고, 동구는 이날 오후 건축위원회를 열어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했다. A주식회사는 기존 건축물과 바로 옆 나



대지를 활용해 증축하는 방법으로 호텔을 건립할 예정이다. 호텔 내에는 아트센터, 비즈니스센터, 뷰티를 리니, 식당, 카페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지역에서는 문화전당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숙박시설과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또 호텔 건립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기도 했지만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쉽게 나서는 사업자들은 없었다. 동구청 관계자는 “올 봄부터 3~4곳에서 전당 주변 호텔 건립에 대한 문의를 해 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사업계획승인신청

서를 제출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건축법상 고도 제한 등 크게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인다. 게스트 하우스와 같은 소규모 시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주식회사의 호텔 건립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B건축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소규모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하다가 문화전당을 찾는 방문객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호텔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규모를 늘리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통난과 조망권 침해로 주변 상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근 상가 주민은 “호텔 건립 부지 앞 도로가 비좁은 상황에서 교통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고층 호텔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무등산 조망권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50대 주부 숨진 채 발견...경찰, 타살 가능성 수사

광주에서 50대 주부가 집안에서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오후 5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A(50)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주부 A씨가 타살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기범 조희팔 사망” 결론

검찰 ‘공소권 없음’ 처분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검사는 28일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숨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로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틀날 오전 0시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한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조희팔 모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 이틀새 멧돼지 3차례 출몰...포획 비상

○...광주 도심에 이틀 새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하면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당국이 포획에 나서서 등소동. ○...28일 광주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호남대학교 캠퍼스 일원에 멧돼지가 나타난 것을 비롯한 최근 이틀간 서구 지역 멧돼지 목격 신고만 3차례에 달한

다.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경찰, 소방, 구청 공무원 10여명이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포획에는 실패했는데, 소방 관계자는 “막이 부족으로 산에서 내려와 야밤에 도심에 활보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다”며 “도심에서 멧돼지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원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고품격 결혼정보회사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편사, 감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이나운사,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여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운동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